

##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전남대학을 사례로\*

안영진\*\*

---

**요약** : 이 글은 대학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시 및 지역발전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고, 대학의 지역사회를 지향한 봉사 기능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이어서 이 글은 전남대학을 사례로 도시 및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봉사활동의 운용방식과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전남대학은 평생교육, 시설개방, 그리고 대학생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봉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봉사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어** : 대학, 지역사회 봉사, 평생교육, 시설개방, 자원봉사, 지역발전

---

### 1. 서론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대학의 존립근거와 대학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하나로 다가오고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고 발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개발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의 산실로 조명을 받고 있는 대학은 조직개편과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의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학은 과거처럼 상아탑(ivy tower)에만 안주할 수 없으며, 사회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고 시대에 적절한 책

무를 찾아내는 동시에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20~30여년 이래 선진 국가들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사회변동과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발맞춰 대학과 국가부문간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간에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대학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와 함께 대학의 각종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신기술과 창의적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광을 받

---

\*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고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과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있어서도 대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떠맡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사회·문화적 자원을 갖춘 대학이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Armstrong, et al., 1997; Emert, 1997).

하지만 21세기에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은 대학들은 대학이 보유한 도서관이나 전산설비, 체육 및 의료교육 시설 등의 각종 시설과 자원들을 대학 구성원의 이용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일찍이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양대 기능으로 발전해 왔지만, 대학의 설립과 전개과정을 통해 넓게는 국가 전체, 좁게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속에 성장해 왔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17세기부터 생겨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처음부터 봉사의 이념을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교회에 대한 봉사,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봉사, 당시 신생국가였던 미국을 위한 봉사를 대학의 설립가치와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서구 대학들은 그 발전과정에서 대중화교육을 지향하면서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봉사(public service) 기능을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재웅, 1996). 그리고 지난 세기 중반 이래 대학들이 상아탑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어 나감에 따라 마침내 공동체에 대한 봉사가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학은 오늘날 학술이론과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와 이를 전달하는 교육을 과거와 다름없이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 대학 소재 도시나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봉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와 연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天野郁夫, 1999; 大學研究教育を考ふる會, 2000).

대학에 관한 기존의 지리학적 연구들은 대학의 입

지와 교육기회, 대학생의 지역적 이동양상, 지역의 경제요소 및 혁신기지로써 대학의 역할, 대학 졸업생의 (지역)노동시장 진입과 취업구조, 대학 교수의 채용·경력·이동 실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Heinritz, 1995; Meusburger, 1998).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산학협력을 비롯한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박영환 외, 2005),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이론적 논거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날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학 재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대학의 각종 시설물의 개방과 공개강좌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학의 지역발전의 기여 여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안영진, 2001; 2003; 2004).

이 연구는 대학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남대학을 사례로 대학의 도시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대학의 지역에서의 공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시 및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대학의 기능에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 어떤 역할이 강조되는지를 문헌과 기존 연구의 재해석을 통해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뒤이어 대학의 지역사회를 지향한 봉사활동의 내용과 각종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남대학을 사례로 대학의 봉사활동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대학의 대외 협력기관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관련 학부 및 학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설문지(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다.

## 2.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 이론적 논의

### 1) 대학의 역할 변화

서구 대학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은 200여년 남짓하다. 그 동안 대학은 인류가 이룩한 고도의 지적 문화를 교육을 통해 전승하는 동시에 새롭게 창조하는 학문의 중심지이자 사회에 대한 지식공급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대학은 사회변동과 경제구조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학 내외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고 있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으로 확립해 온 역할과 사명으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다(안영진, 2005). 하지만 이와 함께 대학이 과거와 달리 현실 사회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여 외부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그 존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有本章 外,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모터'(motor)이자 이른바 '지역의 형성자'(regional builder)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력히 요청받고 있다. 곧, 대학을 대학 소재 도시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체의 하나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관으로서 파악하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박영한, 1998). 이는 대학을 교수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육, 사회활동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업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협의의 봉사기관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뛰어넘어, 대학의 인력과 시설, 자원을 국가와 도시 및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대학은 그 설립기반과 성장배경,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봉사라는 사명을 강조하고 또한 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왔다

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이를 테면, 유럽 대륙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공립대학의 형태로 운영되고 일종의 공공재이라는 인식에서 대학의 각종 시설의 개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많은 대학 도서관들은 주립이나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관청, 기업체에 도서와 문헌자료를 열람시키거나 대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대학개방(university open)을 통해 대학이 시설과 강의를 개방하는 노력이 확립되어 왔는데, 교내·외를 막론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대학에 소속된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위해 교육활동을 비롯한 교육자원을 제공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1880년대 초이래 영국형 대학개방운동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으며, 주립대학 중심의 지역사회 지도사업(상담, 자문, 자원봉사 등)이 주된 대(對)사회봉사활동으로 자리 잡아 왔다(홍영기, 1997). 게다가 근래에는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실천적 대학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굳건히 정착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부기관이라는 공식적 조직만으로는 모든 사회가치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배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회분화를 겪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의 대안으로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개인이나 비정부조직의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 조직되는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의 목표로서, 나아가 지역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체험으로서 과거보다 한층 권장되고 확대되고 있다(남치호, 1997; 이재웅, 1999). 물론 이러한 대학의 사회봉사 또는 사회참여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대학이 보다 많은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

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역량을 보다 원활히 발휘하려는 현실적 노력과 결코 무관치 않다(Soska et al., 2005: 3).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를 3대 사명으로 삼아왔다. 그렇지만 그간 대학은 사회에 울타리를 치고 순수 아카데미즘의 추구라는 우물에 갇혀 봉사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봉사기능이 교육과 연구라는 두 기능에 비해 유명무실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균형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들어 대학은 이로부터 서서히 탈피하여 사회적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고해 나가고 있다.

## 2)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유형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사회봉사 혹은 참여는 지극히 다양하며, 따라서 그 전체 목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여기서 논의하는 대상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대학의 봉사활동이지만, 대학의 봉사는 지역적 범주에 넘어서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탈지역적 범주에 해당하는 것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에 따른 차이도 적지 않으므로 대학의 봉사활동을 일반화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또한 대학의 사회봉사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봉사가 이뤄질 때 그 파급효과와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직접적인 사회봉사의 주요 유형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개략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교육 및 연구기관이나 이와 동시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복합적 시설공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동물병원, 도서관, 박물관, 동·식물원, 체육시설, 어학시설, 전산시설 등은 거의 모든 대학에 부속시설로서 갖춰져 있다. 대학이 해당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그 일원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학시설의 문호 개방은 지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할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획득을 용이케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長崎大學生涯學習教育研究セクター運營委員會, 2002).

둘째, 대학은 지역사회의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이를 통한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학은 현대의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과 다양한 교육시설 및 첨단 교육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대학은 전통적인 대학의 이념인 수월성과 학문적 전통을 고수하고 정규 대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머무를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은 한편으로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또 한편으로 정규학생 이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일반사회의 점증하는 학습욕구에 대응하여 사회교육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石井洋次郎, 1998; 讚岐幸治 外, 2001: 57-75). 오늘날 많은 선진국의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은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의 개방을 통해 고등교육기회를 확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고도 산업화를 주도할 가치와 역량을 추구하며, 나아가 각 개인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한상훈, 2001: 80). 이에 따라 특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고 있는 대학은 연중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학은 지역사회 자원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학은 소수 정예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보다는 점차 대중화교육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문의 실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연히 대학도 교수와 연구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인 봉사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는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실제화하고 민주적 시민참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교육과 인성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다. 즉,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은 지원봉사의 의미와 학습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공과 관련된 갖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직업경험, 사회경험, 그리고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은 사회봉사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윤영채, 2004: 183).

마지막으로 대학은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연구(community based research)를 통해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봉사하고 있다(Fischer et al., 2005: 26). 먼저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대학에 직접적으로 인접한 주변 (건조)환경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공동체 개발에 참여하는 대형 기관들과 파트너관계를 맺거나 일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서점, 레스토랑, 학교, 유치원 등과 같이 공동체시설을 지원하거나 개설하기도 한다. 대학은 때로 주택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근린지구의 개선이나 안정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한 대학의 연구도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하나로, 대학의 각 기관과 학생들은 연구를 통해 주민들과 기관 단체들이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확실히 대학이 전문적인 기술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단체와 기관이 사회적 이슈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다루고 정치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목하 보건위생, 환경, 지역개발, 교육 등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데 대학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연계는 한층 긴밀해지고, 대학이 지역주민 혹은 지역조직과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대학은 도시 및 지역과 분리될 수 없는 조직체이자 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봉사기관으로서 파악된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지역경제발전에 혁신주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의 정책과 제나 문제를 교육과 연구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역의 각종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및 자료은행으로서의 가치형성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지고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은 대학의 인적, 물적, 규범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활용케 함으로써 사회참여의 봉사기관으로서 발전해 가고 있다.

### 3. 전남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현황과 효과 분석

우리나라 서남권의 국립 거점대학의 하나인 전남대학은 국립대학의 설치목적에 따라 지역의 고등교육수요에 대응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문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전개해 왔다. 전남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각종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구성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해 왔다. 여기서는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전남대학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되, 몇 가지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유형을 선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

서 교육과 연구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이 전이나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제외한 대학의 시설개발,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평생교육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개인의 학습권리를 생애에 걸쳐 보장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사회교육, 계속교육, 성인교육, 생애교육 등 유사한 관련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으나,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그리고 학교 외 교육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으로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고 전 생애에 걸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여 개인의 인격적, 사회적, 직업적 발전을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평생교육체계의 구축을 교육개혁의 주된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OECD와 UNESCO에서도 지난 1970년대부터 평생교육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지난 1999년에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입법화했다. 교육부문에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시장경제논리가 교육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교육인프라가 취약하여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평생교육의 주체기관으로서 특히 대학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다(대교 한국교육평가센터, 2005).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각종 학교에 설치된 평생(또는 사회)교육원은 모두 363개로 총 6,756개 과정이 있으며, 전체 정원은 33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평생교육의 중요한 활로이자 최적의 방안으로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남대학은 지난 1997년 2월 지식사회와 전문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교양·문학·예술 등 예향의 맥을 이어가고 개발하는 교육,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세계를 열어가는 인간화교육과 공동체교육, 나이·학력·성별·사회적 신분에 관계 없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교육, 지역사회 지도자의 지도력을 함양시키는 장으로서 21세기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 등을 표방하며 사회교육원을 개원했다. 전남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은 1998년 (주)한국 케이블TV 광주방송과 협력 하에 TV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진도(1998), 완도(2003), 함평(2005) 분원을 차례로 개원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여수대학과 통합됨으로써 기존 여수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여수분원으로 개칭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는 영암 분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1997년 1학기에 9개 과정 416명이 평생교육원에 처음 입학한 후, 2006년 1학기까지 9년 반 동안 총 2,001개 과정에 57,813명이 입학했다. 1998년 1학기에 입학자 총수가 1천명 선과 2학기에 2천명 선을 넘어서고, 2년 뒤인 2000년 1학기에 3천명 선과 2004년 2학기에 4천명 선을 넘어섰다. 또한 1999년부터는 학점은행제 과정이 설치되면서 4개 과정 72명이 입학한 뒤, 2006년 1학기까지 총 83개 과정 1,244명이 입학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과정수와 입학자 수는 아직 미미하지만, 하계 및 동계제절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수료자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1학기 9개 과정 284명이 수료한 후, 2005년 2학기까지 총 1,719개 과정에 45,924명이 평생교육원을 거쳐 갔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평생교육원은 그 동안 대학(원)생, 주부, 직장인, 퇴직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2006년 1학기 광주(용봉)캠퍼스의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3,600여 명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광주의 비율이 90% 가량으로 압도적이지만, 하순, 담양, 나주, 장

표 1. 전남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수료자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용봉 본원		진도 본원		완도 본원		함평 본원		합계	
		과정수	수료자	과정수	수료자	과정수	수료자	과정수	수료자	과정수	수료자
1997년	1학기	9	284							9	284
	2학기	27	702							27	702
	계	36	986							36	986
1998년	1학기	46	1,364							46	1,364
	2학기	53	1,614	10	470					63	2,084
	계	99	2,978	10	470					109	3,448
1999년	1학기	66	2,151	10	491					76	2,642
	2학기	71	2,191	4	388					75	2,579
	계	137	4,342	14	879					151	5,221
2000년	1학기	69	2,070	9	376					78	2,446
	2학기	81	1,953	9	150					90	2,103
	계	150	4,023	18	526					168	4,549
2001년	1학기	73	1,938	7	359					80	2,297
	2학기	83	2,258	11	414					94	2,672
	계	156	4,196	18	773					174	4,969
2002년*	1학기*	89	2,471	10	322					99	2,793
	2학기*	106	2,466	9	243					115	2,709
	계	195	4,937	19	565					214	5,502
2003년*	1학기*	122	3,148	7	291	3	101			132	3,540
	2학기*	131	3,111	9	195	3	73			143	3,379
	계	253	6,259	16	486	6	174			275	6,919
2004년	1학기*	131	3,120	7	204	2	102			140	3,426
	2학기*	142	3,436	9	228	2	77			153	3,741
	계	273	6,556	16	432	4	179			293	7,167
2005년	1학기*	131	3,199	11	267	4	139	5	98	156	3,703
	2학기*	129	3,021	10	225	4	151	5	63	148	3,460
	계	260	6,220	21	492	8	290	10	161	299	7,163
총 계		1,559	40,497	132	4,623	18	643	10	161	1,719	45,924

주: \* 2002년부터는 하계와 동계의 개설 과정과 수료자수는 각각 1, 2학기에 가산함

출처: 전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료

성 등 광주 인접 시군의 비율이 약 7%에 이르고,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전남 시군 및 전북의 비율도 미소하나마 약 3%로 나타나는 등 평생교육원이 지역사

회의 평생 배움터로서 착실하게 기능하고 있다.

2006년 1학기 평생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은 전체 13개 계열(최고지도자, 경영·재테크, 문화, 생활

예술, 음악, 심리·상담, 전문화, 건강·레포츠, 댄스·무용, 전통요리, 생활경영, 민속탐구, 학점은행제)에 걸쳐 총 158개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다시 일반 교양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과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학점은행제와 같은 학위취득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교양과정은 일반교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주류를 이루며, 독서, 사진, 문예창작, 취미강좌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교양강좌는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양 및 여가 취미교육과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 전문교육과정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 교육과정으로서, 타 교육기관과 달리 비교적 특성화된 영역의 전문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과정의 대부분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함께 한국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에는 2006년 1학기 현재 자격증 획득과 관련하여 77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초등영어지도사, 문화유산해설사, 교정복지지도사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셋째, 전남대 평생교육원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정규 대학졸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학위과정을 학점은행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학 평생교육원은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의 종사자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전남대학 평생교육원은 그동안 전문화된 인적자원과 다양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통해 다양하고 비교적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높은 명성과 교육적 신뢰를 얻으면서 급성장해 왔다. 더욱이 대학의 정규강좌가 지니고 있는 획일적이고 이론지향적인 교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자 중심의 실용적 학습체제로 전환 시킴으로써 참여 지역주민 개개인의 교양수준은 물론이고 전문직업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정이나 제도운영, 평생교육에 대한 대학 내 시각 등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교육프로그램들이 일반교양과 취미, 여가선용 수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직업기술과 관련된 전문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평생교육에의 참여가 수의자 부담원칙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학습수요에 맞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이나 수강료를 낼 수 있는 특정 집단과 계층에만 한정됨으로써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인구의 접근이 사실상 배제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게다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강의는 대학의 전임교수보다 외래강사나 전문강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 교수요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강의와 프로그램개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평생교육에 대한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이나 인식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연구와 정규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이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2) 대학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전남대학은 우리나라 서남권의 국립대학으로 비교적 일찍이 개교한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면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전남대학은 다양한 강의실이나 도서관, 언어교육원, 전산정보원 등 교육 및 연구시설, 운동장과실내체육관 등 체육 및 스포츠



표 2. 전남대학의 주요 시설의 개방 현황

	구분	시설개방 여부*	프로그램운영 여부*	비고
교육 및 연구시설	도서관	●		일반인 대상 이용 및 대출
	언어교육원	◎	◎	어학연습실 중심
	전산정보원	◎	◎	컴퓨터 실습실 중심
전시 및 자료조사 시설	박물관	●	●	연중무휴 개방, 문화강좌,
	5.18기념관	●		상설전시
	의학박물관	◎		
	공룡연구센터	◎	◎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	●		완전 개방
	체육관	●	●	관학협력, 정규 프로그램
후생복지시설	수련원	◎		

주 : \* ●은 적극 개방 및 운영을 그리고 ◎은 소극 개방 및 운영을 나타냄

출처 : 필자 조사 및 평가

시설, 박물관 등을 포함한 각종 조사 및 전시시설, 대학병원과 동물병원 등의 의료시설, 수련원과 식당 보건진료소 등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본부와 각급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설 등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 국립대학으로서 전남대학의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은 대부분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른 것인 만큼, 대학이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전남대학이 보유한 각종 시설을 자체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시설개방을 통한 사회봉사는 지역주민의 대학시설 사용빈도와 내용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지역주민들이 대학의 어떤 시설들을 얼마나 빈번하게 이용하는지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유형에 따른 개방 또는 접근여부와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먼저 언급할 것은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시설 중 전시시설은 대학의 학술적 활동과 연계되어 있거나 특정 사안을 기념하거나 교육과 계도의 목적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자체로 (지역)사회로의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남대학의 주요 전시시설로서는 박물관, 공룡연구센터, 5.18기념관, 의학박물관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장 자유롭고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1957년 5월 개관한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국내외의 역사고고학·미술사·인류민속학·자연사 분야의 자료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의 연구 자료도 수집·보존·전시하여 대학 교직원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연구 및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문화유산의 발굴과 지표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향토사의 재조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강좌와 문화유산답사를 통한 사회교육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박물관은 2005년부터 전시시설을 연중무휴 중일 개방하고 있으며, 2006년 4월부터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에게 유적 발굴 현장과 유물복원 과정을 직접 관찰·체험케 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개장했다.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대학 지식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매년 1, 2학기로 나누어 각 12주씩

총 24회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2006학년도 1학기 문화강좌는 '실크로드와 동서 문명교류'를 주제로 2006년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대학 내 용봉문화관에서 대학 교직원과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문화강좌의 참여자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강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인 7만원과 교직원, 학생, 경로 5만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문화강좌의 수강자는 40~50명 선에 이르고, 교내 구성원보다는 교외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관리하는 5.18기념관은 상설 전시관으로 공개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 부대시설인 한국공룡센터와 의학박물관도 기본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대표적인 교육 및 연구시설인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53년 9월 발족한 후, 그동안 교수와 학생 등 주로 대학 구성원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현재 도서관은 본관과 별관, 분관을 합쳐 연건평 10,415여 평의 규모에 5,500여 열람석 및 약 100만권의 장서와 5,400여종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CD-ROM과 온라인 DB, 전자저널, eBook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학술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2000년 3월부터 도서관 자료를 지역사회 주민과 단체에 개방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광주·전남 각종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지역사회 주민 및 초·중·고등학생, 전남대학 사회교육원, 언어교육원, 전자계산소 수강생, 휴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와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산업 및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시설개방을 시도했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에게 유효기간 1년(유효기간이 만료된 도서관 이용증에 대해서는 신분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유효기간

을 갱신해 준다)의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여, 외부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6년 말 현재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외 등록자수는 1,040여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대출의 경우 10일 5책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교환교수, 객원교수, 전임연구원, 시간강사 포함)과 직원 및 조교 2개월 20책, 대학원생(수료자 포함) 1개월 15책과 계약직 직원, 일반연구원, 평생교육원 강사, 언어교육원 강사 1개월 10책에 비해 다소 불리하나, 휴학생, 임시직원, 연구보조원, 평생교육원생, 언어교육원생, 중등교육연수원 연수교사 그리고 전남대학교 병원직원, 명예교수 등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펼쳐가고 있다. 이 밖의 교육 연구시설 및 기관으로서 언어교육원의 어학듣기연습실과 전산정보원의 컴퓨터 실습실은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일정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일반인들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한편, 전남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시설과 함께 오래전부터 체육시설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전남대학은 캠퍼스정비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와 단절을 상징하는 담장을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허물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도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보유한 체육시설 중 4개의 대운동장 시설을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민들에게 전일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방과 후라는 시간의 제한 없이 지역주민들이 각종 걷기나 조깅, 스트레칭 등을 위해 운동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학은 2006년 하반기에 '전남대 복구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하여 운영에 돌입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에 한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전남대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전남대학과 광주 북구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것으로, 지상 3

층 연면적 679평 규모로 전남대학 후문 체육관 앞에 들어섰다. 1층에는 다목적실과 기계실·관리실·탈의실과 샤워실, 2층에는 헬스장·체력 측정실·락카룸·탈의실 및 샤워실, 3층에는 다목적강당과 다목적실·휴게실·각종 운동기구 및 방송실이 설치돼 있다. 이용 회원모집을 통해 운영되는 체육센터는 헬스,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농구교실, 골프, 요가, 재즈 및 다이어트댄스, 운동처방 및 체력측정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강좌마다 전문 강사들이 초빙돼 지도한다. 시민들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건립된 만큼 수강료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학생과 노인에게는 우대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종목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의 편의를 위해 야간반도 개설돼 있다. 전남대 북구국민체육센터는 특히 운동 처방실을 별도로 갖춰 각 개인의 체형 및 체질에 맞는 운동법을 처방해줄 계획이며 추후 어린이 비만교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체육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전남대학은 학생들의 복지공간을 확충한 한편,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은 일차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보건,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최근 들어 그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 동물병원은 이제 대학시설의 개방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전남대학의 경우도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대학의 수련원도 학생, 교직원 및 동문, 학부형의 연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과 행사는 물론이고, 각 기업체 및 기관 단체의 행사에도 개방하고 있다.

### 3) 재학생의 자원봉사 활동

대학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진리와 문화 창조의 중추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지도자적 인성을 길러주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공

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봉사는 자원봉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두 개념을 구분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대학 현장에서는 사회봉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보다 인간답게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활동” 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강화해주고,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의식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활동”으로 정의된다(대교 한국교육평가센터, 2005: 281). 이는 갖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활동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다. 물론 대학의 (지역)사회봉사는 그 주도 세력이 교수인가 또는 학생인가에 따라 그 성격과 활동내용이 달라진다. 즉, 교수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각종 단체 등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공개강좌나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제도 활동 그리고 의료·보건·환경 등 다양한 참여적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반면에 학생들은 대학의 주도 하에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동아리나 개인적 수준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전남대학은 학생들의 봉사정신 구현 및 건전한 과외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8학년도부터 ‘대학과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의 실현하기 위해 사회봉사단을 구성, 교과과정에 따라 봉사 기본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학과 사회봉사 교과목은 정규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서 전교생이 학년과 학과의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학점을 1학점으로 한 학기동안 32시간(기본교육 시간 2시간, 봉사실습 시간 30시간)을 구성하고 연 2회 개설해 왔다. 학생들의 봉사과목 최대 이수학점을 2회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초과 시에는 성적증명서에는 기록되거나 졸업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학점은 평점 환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기본 교육시간을 제외한 실습 30시간을 기준으로 총 출석시간 5분의 1 이상 결석 시에는 'unsuccess'로 처리하고 실습자는 매 학기 말 실습의 종료와 함께 소감문 형식으로 A4용지 2매 가량의 실습보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교수는 기본교육 시간에 참여해서 수강 신청자의 사회봉사자로서의 자세와 학점처리 등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며, 외부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한 과목일 경우 학기 중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학기말 수강생의 실습보고서와 실습평가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처리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과 사회봉사 과목 수강자는 대학이 실시하는 해외 사회봉사단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전남대학 사회봉사의 프로그램영역은 캠퍼스와 지역사회, 복지시설, 사회단체 등이다. 캠퍼스의 경우에는 교육(컴퓨터)과 환자보호, 진료보조, 그리고 장

애학우 보조 등이 주된 활동이며, 지역사회는 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한글교실과 의료진단실의 운영 등이 있다. 복지시설에서 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다. 사회단체의 경우 YMCA가 대표적으로 청소년 계도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2006년 1, 2학기 전남대학 광주캠퍼스의 '대학과 사회봉사' 과목의 전체 수강자수는 각각 367명과 349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학기마다 미소한 등락을 보여주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전남대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내지 전반적인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 단계 전남대학 사회봉사 활동의 운영실태와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과 관련하여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 조사는 전남대학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개설되어 온 '대학과 사회봉사' 과목의 'YMCA 분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했다. 이 과목은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중단된 후, 그 후 매학기 30~40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여 2002년 1학기부터

표 3. 2006년 전남대학 '대학과 사회봉사' 과목 분반 및 수강자수

구분	2006년 1학기		2006년 2학기	
	봉사기관	수강자수	봉사기관	수강자수
교외	각화동 사회복지관	33	각화동 사회복지관	62
	광주·전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44	광주·전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45
	별밭어린이집	19	별밭어린이집	32
	광주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38	광주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47
	YMCA	31	YMCA	42
	광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18	광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36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4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40
	광주 환경운동연합	31	-	-
교내	전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	19	전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	15
	전남대 병원	38	전남대 병원	30
	전남대 정보전산원	54	-	-
합계	-	367	-	349

출처 : 전남대학교 학생지원처 자료

2006년 2학기까지 약 300여 명이 이수했다. 전화 설문조사를 위해 지난 2005~2006년의 4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이수한 145명 중 졸업생을 제외하고 연락이 된 72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대학과 사회봉사' 과목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 학생을 포함한 긍정적이었다는 학생이 69.5%(50명), 보통이었다는 학생이 22.2%(16명), 그리고 부정이었다는 학생이 8.3%(6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과 사회봉사' 과목을 신청하게 된 직접적 목적 또는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람된 대학생활을 위해서'가 44.4%(32명), '대학의 사회봉사에의 동참'이 27.8%(20명), '자원봉사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20.8%(15명), 그리고 '취업 및 사회진로를 위해서 및 기타'가 6.9%(5명)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어서 대학이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68.1%(49명),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변화'가 13.9%(10명),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지원'이 11.1%(8명), 그리고 '소외층의 보호'가 6.9%(5명)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차 대학의 사회봉사는 어떤 부분에 치중해야 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외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이라는 응답이 55.5%(40명)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비영리 공익시민단체' 29.2%(21명), '농어촌' 9.7%(7명), '정부 공공기관 행정지원 및 기타' 5.6%(4명)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상과 같이 특정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인터뷰 조사는 다소 편향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쨌든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한 참여 학생들의 의식과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과정, 대상 등에 대한 다시 한번 의미해 보아야 할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 4. 결론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를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의 사명과 관련하여 대학이 창의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전문 인력을 육성 배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면, 대학의 사회봉사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최근 들어 사회경제구조가 크게 바뀌고 대학 진학자수가 감소일로에 놓여 있으며,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존립을 위한 역할을 새롭게 모색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이 교육 수요자의 욕구 변화를 감안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가져야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통해 창출된 각종 산출물들을 대학이 소재한 도시와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지역과 교류 및 협력적 관계를 통해 그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대학들은 학문 위주의 상아탑식 고립주의 아래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대학이 사회에 울타리를 치고 순수 아카데미즘의 추구에 매몰됨으로써 이른바 'town and gown'의 반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제 지역과 보다 결속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사회변화의 동인이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또한 이를 실

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남대학을 사례로 대학의 봉사기능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의 사명 중 하나인 봉사의 의미와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전남대학의 봉사활동을 평생교육, 시설개방, 그리고 자원봉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해 보았다. 여기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대학은 우리의 기존 인식과 달리 오랫동안 고유한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던 교육과 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를 위한 봉사도 중요한 기능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이 캠퍼스중심사고(on-campus mind)로부터 탈(脫)캠퍼스사고를 갖게 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의 성격인 콰버시티(commiversity)나 트랜스버시티(transiversity)로서의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에 틀림없으며, 대학의 봉사기능도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남대학이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은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개방,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우선 전남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해 전개되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은 10년 남짓한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고 평가된다. 이는 전남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평생교육을 다른 사회조직보다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전남대학의 시설개방은 전시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의 성격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지역사회개방과 공동 활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의 시설개방 노력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봉사 거점기관으

로서 전남대학의 활동은 역시 또한 역사는 일천하지만 대학 재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대학차원에서 조직하여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 파악된다. 학생들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갖추는 기회로서 자원봉사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은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사명임을 재인식하는 바람직한 계기가 되고 있다.

셋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대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봉사를 대학 본연의 기능 중 하나로 몸소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으나, 지역공동체에 보다 밀착된 봉사기관으로서 역할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양과 전문화 교육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보다 매진해야 할 것이며, 장차 대학 평생교육기능을 내실화시킴으로써 무엇보다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평생학습체계의 구축에 전남대학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의 시설개방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도 이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폭넓은 분야의 시설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대학의 자발적 사회봉사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조직하고, 활동 주체가 되는 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사회는 대학교육의 장이자 대학교육의 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첨단기술의 발달과 교육기회의 확충, 열린 교육체제의 확산 등은 캠퍼스와 지역사회간의 교류와 연대, 협력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서비스채널이

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학의 사명 중 하나인 사회봉사의 일차적 장도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경주해 나아가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치호 외, 1997, 대학과 지역사회발전, 안동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 대교 한국교육평가센터, 2005, 대학경영의 원리와 진단, 서울: 학지사.
- 박영한, 1998,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에 관한 제도 분석: 독일의 대학도시 뮌스터를 사례로," 지리논총 31, pp.1-16.
- 박영한·조영국·안영진, 2005, 대학과 지역발전, 서울: 한울.
- 안영진, 2001,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pp.37-56.
- 안영진, 2003,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과 지역발전: 전남 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pp.171-191.
- 안영진, 2004,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취학권: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481-501.
- 안영진, 2005, "대학과 지역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pp.71-89.
- 윤영채, 2004,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방대학과 지방정부간 협력방향,"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15, pp.173-188.
- 이재용, 1999, "미국 대학의 사회봉사체제와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9(1), pp.411-437
- 이현청, 2004, "사회봉사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창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바람직한 미래 대학 사회봉사 활동 방향) 자료집.
- 한상훈, 2001, "대학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발전연구 22(2), pp.79-101.
- 홍영기 역, 1997, 미국대학과 사회봉사, 서울: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
- 大學研究教育を考える會(編), 2000, 大學の社會的責任: 大學における學問·教育·人材育成, 東京: 丸善株式會社.
- 白石克己 外(編), 2001, 學校と地域でつくる學びの未來, 東京: ぎょうせい.
- 石井洋次郎, 1998, "社會に開かれた學: 大阪市立大學," 都市問題研究 50(2), pp. 102-114.
- 長崎大學生涯學習教育研究センター運營委員會(編), 2002, 地域と向き合う大學を考える, 長崎: 財務省印刷局.
- 讃岐幸治 外(編著), 2001, 生涯學習社會,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Armstrong, H. W. et al., 1997, "Maximising the lo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of a university: Lancaster University," *GeoJournal* 41(4), pp. 339-350.
- Ermert, K.(ed.), 1997, *Hochschule und Region: Wirkungen und Wechselwirkungen*, Regensburg-Loccum.
- Fischer, R., Fabricant, M. and Simmons, L, 2005, "Understanding contemporary university-community connections: Context, practice, and challenges," Soska, T. M et. al.(eds.), 2005,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Universities in Civic Engagement*, New York: The Haworth Social Work Practice Press, pp.13-34.
- Heinritz, G.(ed.), 1995, *Beitraege zur regionalen Bildungsforschung* (= Muenchener Geographische Hefte 72), Muenchen.
- Hoffacker, W., 2000, *Die Universitaet des 21. Jahrhunderts: Dienstleistungsunternehmen oder oeffentliche Einrichtung?*, Luchterhand: Neuwied.
- Meusburger, P., 1998, *Bildungsgeographie: Wissen und Ausbildung in der raeumlichen Dimension*, Berlin: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 Soska, T. M and Butterfield, A. K. J.(eds.), 2005,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Universities in*

*civic engagement*, New York: The Haworth Social  
Work Practice Press.

교신: 안영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사  
회과학대학 지리학과, Tel: 062-530-2686, Fax: 062-  
530-2689, E-Mail: yjahn@chonnam.ac.kr

Correspondence: Young-Jin Ahn,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062-530-2686, Fax: 062-  
530-2689, E-Mail: yjahn@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07년 1월 24일

최종접수일 2007년 2월 12일



## **Community Services of University: A Case Study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ung-Jin Ahn\*\*

**Abstract** : This article shows how the university can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its public services. To that end, this article firstly tried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universities in civic engagement. Secondly the actual contents and various programs of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ocated in Kwangju, South Korea are analyzed as a case study. It is seen th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 emphasizing the civic engagements in terms of continuing educations, openings of the facilities, and volunteers services or social works of the students. But the more active connections between university and its community are still needed for the enhanced responsibility of the faculty about public services and for the enduring civic engagements.

**Keywords** : university, public services, continuing education, opening of facilities, volunteers service, regional development

---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2005.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